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공지사항 1. 7 월 독서 및 간식 청소는 1 구역입니다.	
+ <u>지난주 우리의 정성</u> 봉헌금 : \$239 매일미사: \$20 합계 : \$259	
주 일 미 사 고 백 성 사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성모회 금요기도모임 교리 모임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사제관 (7 월 13 일) 다음 기도모임 9 월 첫주 금요일(장소 게시판 참고) 격주 토요일 오후 2 시 45 분 성당친교실 (7 월 7 일) 격주 금요일 저녁 8 시 흥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7 월 6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닌 하느님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사제는 자신의 저서에서 ‘오늘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대화’라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훌륭하고 옳은 대답이다. 그러나 너는 불행하구나. 너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배웠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시지는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인: 정말 그럴습니다, 주님. 누군가가 미리 대답을 다 해 주는 바람에 하느님께서 미처 말씀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 주어서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려 준 답을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삼바로
(608) 628-7977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6월 29일(금)

<제 1 독서>사도 행전 12,1-11

<제 2 독서>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 서 4,6-8.17-18

화답송

◎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돌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19
그때에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복 음

영성체송

오늘의 성가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시작:435 봉헌:512 성체:502 파견:472

† 오늘의 묵상

텔레비전에서 ‘가시고기’라는 작은 물고기의 일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시고기의 어미는 알을 낳기 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알을 낳고는 가시고기의 아비만 남겨 두고 떠납니다. 남은 아비 가시고기는 정성스럽게 알을 보살핍니다. 알이 부화하면 아비는 지쳐서 죽고, 새끼들은 죽은 아비의 몸을 먹고 살아납니다. 이처럼 아비 가시고기의 마음에는 바다를 품은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병든 딸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아비 가시고기처럼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 주십시오고 간곡히 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가시어 그의 딸을 살려 주십니다.

요즈음 시대에 아버지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마음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아버지는 바쁘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할 기회가 적으니 자녀들의 고민이나 관심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일) 연중 제 13 주일(교황 주일)

<제 1 독서>지해서 1,13-15; 2,23-24

<제 2 독서>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 서 8,7.9.13-15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21-43<또는 5,21-24.35 ─-43>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 났다.
< 그 가운데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술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대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 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